

방탄소년단·블랙핑크, 'K-피처링'...한국어 귀한 대접

“내 그림자를 가른 한줄기 빛/어둠기만 한 내 삶을 뒤집어 놓은 너/나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지/너를 만나기 전엔 그저 보잘것없던 나/보잘것없던 나/그런 내 삶은 다/하루를 대충 때우기에 급급했잖아 yeah(예)/우리의 낮 우리의 밤 그대 우리의 삶/우 AR e MY light(유 아 마이 라이트) 서를 지탱하는 벗 서로의 닷.”

미국 팝스타 맥스(MAX)가 최근 발표한 새 정규앨범 '컬러 비전(Colour Vision)'의 타이틀곡 '블루베리 아이즈'에는 익숙한 언어와 목소리가 들린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한국어 랩으로 피처링한 부분이다.

서로의 인생에서 빛이 되고 의미가 된 연인의 사랑을 썼다. 뮤직비디오에서는 맥스와 에밀리가 서로 마주보고, 슈가의 랩 파트를 팀싱크한다. 한글 자막도 등장한다.

슈가의 한국어 피처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발매된 미국 팝스타 할시의 신곡 '슈가스 인터루드(SUGA's Interlude)'에 프로듀서로 참여, 작사·작곡·랩 피처링을 맡았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은 무엇보다 어둡지만” 등 역시 한국어를 읊었다.

방탄소년단을 선봉으로 한 K팝의 글로벌 붐으로, 해외 가수의 곡에 한국어 피처링이 잇따라 늘고 있다.

한편에서는 'K-피처링'으로 묶여 현상으로 보고 있다.

K팝 간판 걸그룹으로 부상한 그룹 '블랙핑크'도 이 흐름에 합류했다. 지난 5월 세계적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발표한 '사위 캔디(Sour

미국 팝스타 맥스 '블루베리아이즈', 슈가 한국어 랩 피처링 해외가수 곡에 한국어 피처링 늘고 있어... 'K팝 글로벌 붐' 이규탁 교수 “한글로 노래 부르면 세련돼 보이는 경향 있어”

Candy)'에 블랙핑크가 피처링을 했는데 노랫말에 한국어도 포함됐다. “뜻밖의 표정 하나에 난 당황하겠지 / 비싼 척이란 말들로 / 날 포장한 건 너야 너야” 등이다.

외신들은 세계적 팝스타와 톱 K팝 걸그룹이 만났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했다. '사위 캔디'는 아이튠즈 세계 57개 지역 1위, 글로벌 유튜브 송 톱100 1위를 달성했다.

아울러 세계 양대 팝 차트인 미국 '빌보드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톱40'에서도 각각 33위와 17위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원곡의 리믹스 버전엔 한국어 피처링을 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원곡을 새롭게 환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처링한 K팝 가수의 팬덤의 지지를 업고, 곡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협업으로 업계는 평가한다.

최근 차세대 K팝 그룹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븐틴' 멤버 조슈아와 도겸은 미국 싱어송라이터 핑크 스위트(Pink Sweet\$)가 최근 발매한 '17' 리믹스 버전엔 한국어 피처링으로 힘을 실었다.

조슈아와 도겸의 청량한 보컬이 원곡과 다른 청량한 분위기를 선사했다.

감성적인 멜로디의 미국 일렉트로닉 팝 듀오 '엑스러브스(X Lovers)'가 최근 발매한 '러브' 리믹스에는 JYP엔터테인먼트의 밴드 '데이

식스' 영케이가 협업했다. 감성적인 멜로디와 가사, 독특한 음색이 어우러져 엑스러브스만의 색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기존 곡 '러브(LOVE)'의 리믹스 버전이다. 영케이의 달콤한 목소리와 한국어 가사가 어우러졌다.

그간 한국어는 각지고, 딱딱한 어감으로 인해 세계인이 함께 부르는 노래 가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애플뮤직 광고에 등장할 정도로 세계 음악 신에서 핫한 존재로 떠오르는 DJ 겸 EDM 뮤지션 예지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편견은 금세 깨진다.

한국계 미국인인 예지는 미국 뉴욕 퀸스에서 출생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자랐다. 힙합 바이브와 아방가르드 팝을 절묘하게 블렌딩한 신선한 사운드와 함께 속삭이듯 읊조리며 주술처럼 전해지는 한국어와 영어의 래핑이 주목받는 이유다. 세계 음악신과 팬들은 EDM 사운드에 섞인 한국어 발음을 신비롭게 듣는다.

예지는 작년 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어에 대해 “각이 저 있고 질감이 있는 느낌이 들고, 또한 발음이 시를 읊는 것 같다. 한국어를 말할 때는 마치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 들 다보니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과거 롤링스톤은 한국어 노래에 대해 “가사



를 찾아보기 전까지 오히려 더 신비하게 느껴지며, 방탄소년단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아름답다”는 팬들의 인터뷰를 게재하기도 했다.

팝스타들도 한국어에 대해 호의적이다. 방탄소년단의 대표곡 중 하나인 '아이돌'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팝스타 니키 미나즈는 뮤직비디오에 자신의 영어 랩을 한글로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중음악평론가인 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는 “이전까지 K팝이 마니아적인 문화였는데, 이제 해외의 젊은 세대에게 쿨하고 힙하며 젊은 감수성을 대변하는 세련된 문화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문화가 대접을 받는 흐름이 생겼고, 그것을 대표하는 현

상 중 하나가 한국어다. 한글로 노래를 부르면 세련되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어 피처링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봤다.

K팝의 인기로 힘 입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외국인인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 교재 '뎀! 코리아 워드(Learn! KOREAN with) BTS'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프랑스 등의 일부 대학들이 한국어 교재로 채택했다.

해외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수는 “K팝을 좋아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우주소녀, 데뷔 4년만 첫 유닛 '쫄꼬미' 최초 공개

내달 7일 앨범 발매 확정

그룹 우주소녀가 첫 유닛 '쫄꼬미(Chocome)'로 가요계 출격한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22일 오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우주소녀의 첫 번째 유닛 쫄꼬미의 커밍순 이미지를 최초 공개했다.

공개된 커밍순 이미지 속 노란 배경 위에는 '우주소녀 쫄꼬미'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여기에 분홍색 동그라미 속에는 커다란 리본 머리카락 쓰고 있는 멤버들의 실루엣이 담겨, 아직 공개되지 않은 쫄꼬미 멤버들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냈다.

또한 첫 번째 싱글 앨범명인 '홍치붕'

을 공개하고 활동 시작 날짜를 '2020.10.07'로 확정 지으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이로써 우주소녀는 데뷔 이후 4년만에 첫 유닛을 결성하게 됐다.

우주소녀는 2016년 '모모모(MoMoMo)'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비밀이야(Secret)', '너에게 닿기를(I Wish)', '이루리'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입지를 다졌다.

지난 6월에는 '네버랜드(Neverland)'로 가요계 컴백, 자체 최고 초동 신기록을 세우며 타이틀곡 '버터플라이



(BUTTERFLY)'로 음악방송 2관왕에 올랐다.

마미손 이을 '부캐' 경연...엠넷 '부캐 선발대회'

최종 우승자, 음원발매 및 1년간 활동 지원...내달 중순 유튜브 공개



국내 최초 '부캐(부캐리터)' 세계관을 창시한 마미손이 그의 뒤를 이을 부캐를 직접 찾는다. 엠넷이 대한민국 대표 '부캐'를 찾는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 '부캐 선발대회'를 선보인다. '부캐 선발대회'는 가수, 개그맨, 유튜버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인물들이 자신만의 '부캐'로 등장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매력을 뽐내는 예능 콘텐트다. 가장 독보적인 '부캐'를 가진 최후의 한 팀을

선발하는 과정을 담아 동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10월 중순 첫 공개된다.

'마미손'이 심사위원으로 '부캐 선발대회'에 참여, 프로그램을 이끈다. 마미손은 스타성과 음악성, 뚜렷한 정체성을 모두 겸비한 독보적인 '부캐' 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부캐 선발대회'의 최종 우승팀에는 2개의 음원 발매 기회, 단독 콘서트 개최 및 1년간의 음원 활동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작진은 "마미손의 독보적인 행보를 보며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부캐'만이 선보일 수 있는 색다른 셀럽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과연 '부캐(본 캐리터)'는 누구일지 추측하는 재미로 신선한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부캐 선발대회'는 내달 중순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공개되며, 오는 11월 말 엠넷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이준기 X 문채원 X 서현우 X 장희진 “여운 길게 남을 듯”

역대급 열연 펼친 주역 4인방의 '악의 꽃' 종영 소감



'악의 꽃' 이준기, 문채원, 장희진, 서현우가 애정 어린 종영 소감을 전했다.

tvN 수목극 '악의 꽃'은 역대급 열연을 펼친 주역 4인방의 특별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명불허전' 클래스를 입증한 '도현수' 역의 이준기는 “지난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달려온 '악의 꽃'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사실 처음 시작했던 때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고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컸었다”고 운을 폈다.

그는 “무엇보다 '악의 꽃'을 함께 즐겨주고 응원해준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정말 더 힘을 내서 완주할 수 있었다”며 “매 작품이 그랬지만 '악의 꽃'은 유독 여운이 길게 남을 것 같다”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차지원' 역으로 또 다른 인생 캐릭터를 쓴 문채원은 “따뜻한 봄부터 서늘한 가을까지 세

계절을 함께 보낸 '악의 꽃'이 종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는다”며 “최선을 다해 촬영에 임했기에 어느 때보다 보람된 작품으로 저에게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차지원이라는 캐릭터와 감정을 최대한 진실되게 표현하고 싶었던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시청자 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김철규 감독님, 유정희 작가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 동료 배우분들까지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가녀린 분위기 속 누구보다 강한 마음을 가졌던 '도현수' 역의 장희진도 “예상치 못한 큰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함께 만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과 애정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오늘 밤 드디어 마지막 회가 방송되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김무진' 역을 맡아 장르불문 연기 스펙트럼을 제대로 증명해낸 서현우 역시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 덕분에 스태프들과 안전을 지키며 힘을 내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시청자분들도 힘내시고 앞으로 '악의 꽃'이 힘든 상황 속에 잠시나마 쉬어갈 심심한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감사드립니다”는 애정을 듬뿍 담은 소감으로 훈훈함을 더했다.

트와이스, 日 7번째 싱글 '베터'...11월 공개

일본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인기 과시... 'K팝 대표 걸그룹'



그룹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새 싱글을 공개한다.

23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오는 11월 18일 일본에서 일곱 번째 싱글 '베터(BETTER)'를 선보인다.

"지금"을 주제로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하지만 이어져 있다"라는 콘셉트를 표현하는 싱글이다.

JYP는 "앨범 비주얼은 만날 수 없는 일

상 속에서도 서로 마주할 그날을 꿈꾸며 열심히 지내는 멤버들의 모습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새 싱글에는 타이틀곡 '베터'와 신곡 '스콜피온(Scorpion)'이 실린다.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인기를 과시하며 'K팝 대표 걸그룹'의 명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16일 발표한 일본 베스트 3집 '헤시태그트와이스3(#TWICE3)'는 오리콘 일간 앨범 차트에 이어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차트서 통산 7번째 정상을 차지하며 해외 여성 아티스트로서는 최다 1위 기록도 수립했다.

또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발매한 10장의 앨범을 연속으로 플래티넘(25만장 이상 판매량)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

2017년 6월 발표한 일본 데뷔 베스트 앨범 '헤시태그 트와이스'를 시작으로 올해 7월 '팡파르(Fanfare)'까지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하고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